# 대오견성 용맹심으로 결제 임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若論此事(약론차사)일진댄 千聖靈機不易親(천성영기불이친)이라. 龍生龍子莫因循(용생용자막인순)하라. 眞際奪得蓮城壁(진제탈득연성벽)하니 秦主相如摠喪身(진주상여총상신)이로다.

이 일을 논할 진댄 일천성인의 신령한 기틀도 쉽게 친하지 못한지라. 용이 용새끼를 낳아서 따른다고 이르지 말라. 진제가 연성의 보배구슬을 빼앗아 가지니 진나라 임금과 상여가 다 생명을 잃음이로다.

금일(今日)은 기해년 하안거 결제일이라. 여름과 겨울에 사부대중이 모여서 결제하는 수행전통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훌륭한 전통이다.

그러면 대중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행(修行)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천이백 대중을 모아놓고 물으시기를 "대중이 얼마나 공부를 시켜 주느냐?"하니, 아난 존자(阿難尊者)가 일어나서 말씀드렸다.

"대중이 반을 시켜줍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네가 잘 알지 못했다. 대중이 전체를 시켜주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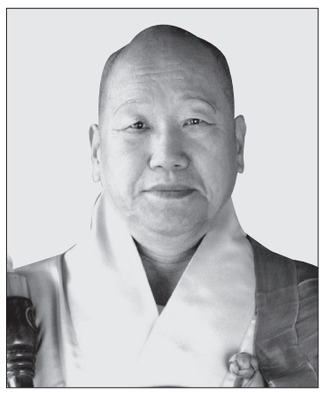
대중의 힘이라는 것은 무섭다. 게으름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대중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용맹(勇猛)과 신심(信心)을 내어 애쓰고 애쓰는 이나, 화두일념삼매(話頭一念三昧)에 들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참구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러한 이들을 보고 각자가 자신을 반성하여, 다시 신심(信心)을 내고 발심(發心)을 해서 공부를 다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대중이 공부를 전체 다 시켜 준다고 하셨던 것이다.

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은 다시금 결제가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금번 결제에는 반드시 대오견성하겠다는 용맹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결제에 임해야 할 것이라.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앉으나 서나, 가나오나, 밥을 먹으나 산책을 하나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라. 그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발동하여 보는 것도 잊고 듣는 것도 잊고 일념삼매(一念三昧)에 푹 빠져 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됨이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산(雪山)에서 6년의 용맹정진 끝에 일념삼매에 들어 납월 팔일 새벽 별을



보고 대오견성(大悟見性)하셨음이라. 그 후에 대중들에게 49년간 가지가지의 방편법문을 하셨다.

대중에게 세 번 특별한 법문을 하신 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한다. 한 번은 인천(人天) 백만 대중이 법문을 듣기 위해 좌정(坐定)하고 있을 때, 제석천왕(帝釋天王)이 부처님께 우담바라 꽃을 올리니 부처님께서 그 꽃을 받아서 아무 말 없이 대중에게 보이시니 오직 가섭 존자(迦葉尊者)만이 빙그레 웃으셨다.

또 한 번은, 법회일에 모든 대중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 운집(雲集)해 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섭 존자(迦葉尊者)가 들어오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기 위해서 법상에 좌정해 계시다가 자리의 반을 비켜 앉으셨다. 가섭 존자가 부처님의 그 뜻을 알고는 선뜻 그 자리에 가서 앉으니, 부처님께서 가사를 같이 두르시고 대중에게 말없이 보이셨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일주일 후에, 교화(敎化)를 위해 수백 리 밖의 타방(他方)에 가 있던 가섭 존자가 돌아와 부처님의 시신을 향하여 위요삼잡(圍繞三匝)하고 합장 예배를 올리며, "삼계(三界)의 대도사(大導師), 사생(四生)의 자부시여! 우리에게 항상 법문하시기를, '생노병사(生老病死)가 원래 없다' 하시더니 이렇게 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하니, 칠 푼 두께의 금관 속에서 두 발이 쑥 나왔다.

그래서 가섭 존자가 다시 합장 예배를 올리니, 두 발은 관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관이 그대로 중천(中天)에 떠올랐는데 이 때, 지혜삼매(智慧三昧)의 불이 일어나 허공중에서 화장(火葬)되어 팔곡사두의 사리가 나왔다.

이렇듯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가섭 존자만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알았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있는데 마하 가섭에게 전해 주노라"하시어 가섭 존자에게 견성심인법(見性心印法)을 인가(認可)하여 전하셨다. 이 삼처전심의 법문을 알아야만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아는 것이고, 만 중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눈을 멀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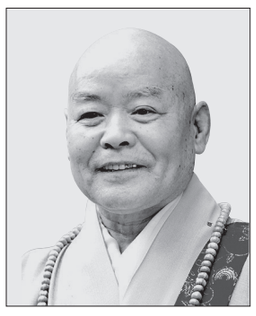
## 마음 따라 일체만법 생멸한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모름지기 수행자란 마음 닦는 일 이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서 삼삼조사(卅三祖師)나 천하종사(天下宗師)가 다 구경각(究竟覺)을 깨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납자들이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從何而修)"라고 하니, "근본부터 닦아야 하느니라(從根本修)"했습니다. 그러자 납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부터 닦는 것입니까?(云何從根本修)"라고 하자, "마음이 근본이니라(心爲根本)"라고 일갈했습니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生)하면 일체만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滅)하면 일체만법이 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정토(淨土)를 얻으려고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나니, 그 마음의 깨끗함을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총림에서 정진하는 납자나 자기 사찰에서 정토 염불 기도하는 종도나, 다 마음 찾는 공부는 똑같습니다. 이번 한철에는 태고종문의 태고법손들은 흑백(黑白)으로 나눠서 분별시비(分別是非)하지 말고 원융화해(圓融和解) 큰마음으로 구종(求宗)의 정법당간(正法幢竿)을 높이 들어서 부종수교(扶宗樹敎)의 본분을 다하는 진정한 승가(僧伽)의 일원(一員)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세간만사는 모두 환몽이다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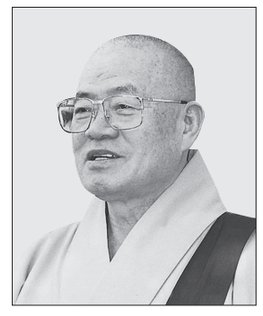
망념과 모든 반연 끊어 제하니 천진한 면목이 마땅히 드러나는지라. 불 속에 핀 연꽃이 향기가 천지에 떨치니 항하의 모래수 중생이 다 깨닫는도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개개인이 본래 갖추어 있는 새지 없는 참된 성품을 도리어 가히 알았는가? 만약 조사의 관문을 투득했거든 아무렇게나 한마디 일러보라! 잠깐 있다가 "할"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눈 속에 바야흐로 송죽의 절개를 아는지라 알겠는가? 깊은 밤 삼경에 대문에 들어가니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도다.

모든 사람은 바야흐로 조종문하에 있어서 무슨 일을 행하는고? 지극히 명리를 구하는가? 지극히 영화를 구하는가? 지극히 안일을 구하는가? 지극히 지식을 구하는가?

다 아닌지라. 세간만사는 모두 이 환몽이니 한 칼로 두 끝내어 다만 본 성품만 구할지니 쉬고 쉬어라. 옛 조사가 이르시되 심성은 물듦이 없어 본래 스스로 원성이라 하니 법답게 수행해서 본성을 깨달으면 길이 생사를 면해서 만법에 왕노릇 하리니 머리에 불 끔과 같이해서 잠깐도 쉬지 말지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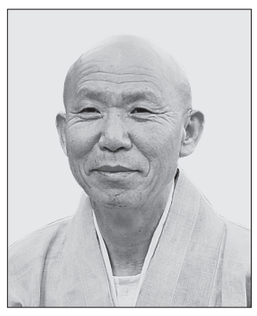
시방법계의 모든 납자가 모두 조사의



공안 상에 있도다. 부처님과 조사가 체득한 당처를 알아 얻기만 하면 곧 장부의 능히 할 일을 마치리라. 정신차려 살피라!

## 향상일로는 각자의 몫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별봉조진(別峰祖珍)선사가 법석사(法石寺)에서 결제하는 날 법좌에 올랐습니다.

"향상일로(向上一路)는 천성부전(千聖不傳)이라. 향상의 외길은 모든 성인들도 전하지 못했다."

주장자를 높이 세우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밝혔으니 십만 팔천의 법상(法相)과 도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인가?"

결제대중이 아무런 답변이 없자 양구(良久)하더니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도홍이백장미자(桃紅李白薔薇紫)인데 문착동군자부지(問着東君自不知)로다.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며 장미꽃은 자주색임을 봄바람에게 물었더니 그도 알지 못하는구나."

야보도천(冶夫道川)선사는 금강경 시작부분인 "일시에 부처님께서 사위국기수급고독원에 계시니"라고 길게 읊고는 '일시(一時)' 부분에 대하여 당신의 송(頌)을 붙였습니다.

"시시(時時)여! 청풍명월(淸風明月)이 진상수(鎭相隨)라. 도홍이백장미자(桃紅李白薔薇紫)인데 문착동군자부지(問着東君自不知)로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항상 서로 따르고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며 장미꽃은 자줏빛으로 피는 것을 봄바람에게 물었더니 그도 모르더라."

'일시'란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시는 금강경을 설하던 당시의 일시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떤 곳이건 금강경이 설해지면 어느 때라도 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옛 일시와 지금의 일시는 같은 일시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달이 뜨고 꽃이 피는 것조차도 그 일시와 같은 일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고 장미꽃은 자줏빛으로 피었으며 또한 현재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사들은 괜히 쓸데없는 말로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복숭아꽃 붉고 오얏꽃 희며 장미꽃은 자주색임을 봄바람에게 물었으나 그도 알지 못한다' 라는 시를 억지로 빌려와 '분별이 없는 가운데 삼라만상의 차별상 하나하나가 모든 진리를 드러낸다' 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반산보적(盤山寶積) 선사는 별봉조진 선사의 법문을 빌려와 시중(示衆)한 것입니다.

"향상일로(向上一路)는 일천 명의 성인도 전하지 못하거늘 배우려는 사람들은 공연히 헛수고를 하니 마치 원숭이가 물속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으리라."

향상을 위한 열쇠는 결국 내가 챙기는 화두입니다. 설사 바다가 일천성인의 입이라고 할지라도 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무쇠로 만든 배를 수미산 꼭대기로 끌고 가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결제 대중들은 여름 한철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인생문제, 생사문제가 해결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중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구상착래무교처(口上着來無咬處)인댄 방지천성불능전(方知千聖不能傳)이리라.

입술을 위로 붙이고 아무 것도 씹지 않는 곳이라면 바야흐로 일천 성인도 능히 전하지 못한 것을 알리라.

## 어설픈 지혜로 세상 변화 못 따라가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하안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염천(焰天)의 열기를 벗 삼아 우리 대중은 정진해야 됩니다. 늘 건강 살펴 무사히 안거 동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맡은 소임이 소임인지라 중언부언이지만 별 볼일 없는 늙은 비구가 법상에 올라와 몇 마디 할 수 밖에 없으니 사부대중들은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 산철동안 중국의 청담가(淸淡家)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고담준론(高談峻論)을 나누며 오석산(五石散)을 먹는 그런 부류들인데 맑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상한 척하지만 실질(實質)이 없어 쉼 없이 생기는 상황들에는 손발 둘 곳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이나 참담하며 두려워졌습니다. 부처님 말씀과 행을 핑계 삼아 저런 청담가들의 공리담론(空理談論)과 같은 행을 했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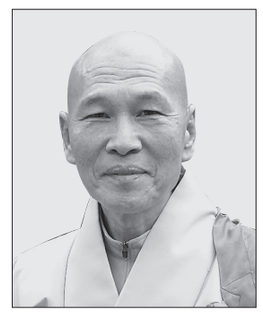
부처님께서 고요함에 집착함을 경계하셨고 조사스님들께서도 성성(惺惺)과 적적(寂寂)을 말씀하셨지 고요한 경계(寂寂)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성(惺惺)함이 없는 적적(寂寂)은 외도이지 우리 불교가 아닙니다. 깨어있음이 없이 고요한 경계에 집착하는 이들은 어찌 보면 외도요, 잘 쳐줘봐야 청담부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청담(淸淡)으로는 생사의 깊은 수렁에서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이야기 따위로 어찌 마하반야에 계합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절집안의 많은 이들이 청담가(淸淡家)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事적인 측면만을 보아 理 입장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편중된 것이 아닌가 오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理事가 본디 둘이 아니기에 원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 인연으로 가끔 세속에 나가 일을 보게 되는데 다른 종교들은 실용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활동을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 절집은 갈수록 현상적인 부분을 놓쳐서 쓸만한 인재가 드물게 생각이 듭니다. 뼈아픈 얘기지만 허황된 생각들에 경도되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식광(識狂)을 깨달음으로 착각해 자신이 불조(佛祖)나 된 듯 함부로 말해대는 청담말류(淸淡末流)들만이 자주 보입니다. 이런 발전된 세상에 농경시대 때나 통용되던 관념으로 어찌 신시대의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현칙 스님이 법안문익 스님 회하에서 감원소임을 살 때 법안 스님께 한 번도 법문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칙 스님 자신은 청림화상 문하에서 한 소식을 했다고 믿고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법안 스님께서 현칙에게 뭘 깨쳤냐 물으시니 현칙 스님 답하기를 '丙丁童子來求火라!'

丙丁은 불을 이름함이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법안 스님께서는 그 말을 수긍치 않으셨고 현칙 스님은 짐을 싸서 법안 스님에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칙 스님은 다시 돌아가 다시 법안 스님께 법을 청했습니다. 청림화상 문하



에서 얻었던 작은 것에 집착을 했었다면 현칙 스님은 생사관(生事關)을 돌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칙 스님은 큰마음을 내어 다시 돌아왔고 무엇이 부처인가를 법안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丙丁童子 來求火라!' 법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칙 스님은 깨쳤습니다.

우리 사부대중들은 악지(惡知)와 악해(惡解)를 여의고 실참실오(實參實悟)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어설픈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변화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바른 정진(正定進)으로 바른 견해(正見)를 얻어야만이 그리 될 수 있습니다. 〈하략〉

## 그림자 없는 나무에 붉은 꽃 만발하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一株無影樹(일주무영수)를 移就火中栽(이취화중재)라. 不假三春雨(불가삼춘우)라도 紅花爛熳開(홍화란만개)로다.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불 가운데 옮겨 심었네. 춘삼월의 비를 빌리지 않아도 붉은 꽃이 어지러이 피어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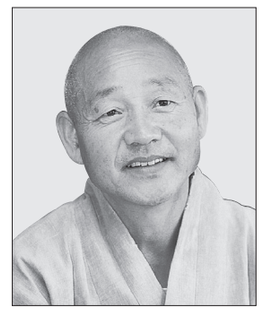
총림대중이 모여 결재용상방을 짜고 하안거 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재와 해재가 없이 늘 힘써 정진해야 하지만 스스로 느슨한 마음을 단속하고 가행정진을 다짐하는 날이 결재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대중이 산문출입을 삼가며 계율을 엄정히 지키고 정진에 힘쓰도록 안거제도를 시행하셨습니다.

일체 賢人(현인)과 聖人(성인)이 증득한 법이 모두 無爲法(무위법)이나 그 일에 차별이 있으니 성문은 四諦(사체)를 수행하고, 연각은 十二因緣(십이인연)을 닦으며, 보살은 六波羅密(육파라밀)을 실천합니다.

총림의 수선납자는 오직 화두참구하기를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구하듯이 간절하게 대의심 · 대분심 · 대신심을 일으켜 바로 화두를 타파하고 여래지에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화두참구가 성성하게 되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무아를 체득하면 다른 인연이 없어지며, 마음에 다른 인연이 없어지면 그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아져서 부처님과 조사의 신통묘용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비록 그러하나 견해에는 천 가지로 차별이 있으며, 그 차이는 한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한 생각의 차이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天地(천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지는 한 덩어리이니 금으로 천 개의 그릇을 만들면 그릇 그릇이 모두 금이며, 한 덩이의 전단을 쪼개면 만 조각의 전단이 모두 전단향입니다.



法相非法相(법상비법상)이여 開拳復成掌(개권복성장)이로다. 浮雲散碧空(부운산벽공)이니 萬里天一樣(만리천일양)이로다.

법상과 비법상이여! 주먹을 펴니 다시 손바닥이로다. 뜬구름이 푸른 하늘에서 흩어지니 만리 하늘이 푸른 하늘이더라.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